

## 불굴의 산악인 김홍빈 대상 20회 대한민국 산악대상에

서채현 '스포츠클라이밍상'...박수호 심판 '특별상'



김홍빈 대상이 차지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를 완등한 뒤 브로드피크(8047m) 하산 중에 실종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제20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에서 산악대상을 수상했다. 또 스포츠클라이밍상은 서채현(18·신정고), 고상돈특별상은 스포츠클라이밍 박수호 심판이 차지했다.

대한산악연맹은 15일 서울 파크히비오 호텔에서 '2021년도 산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0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악대상을 수상한 김홍빈 대장은 지난 7월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해발 7900m지점에서 1차 조난됐다. 조난 지점에서 버틴 김 대장은 구조 과정에서 다시 추락한 뒤 실종됐다. 김 대장은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면서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스포츠클라이밍상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결승에 진출해 최종 8위에 오른 서채현이 영광을 안았다.

고상돈특별상은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를 역임하며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에 기여한 박수호 심판이 받았다.

'산악인의 날'은 1977년 9월 15일 고(故) 고상돈 대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산악연맹이 제정한 날이다.

대한산악연맹은 1978년부터 9월 15일을 전후해 매년 기념식을 연다. 또 2000년부터 각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산악인을 선정해 대한민국 산악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전국 시·도연맹과 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산악 관련 언론사 등 유관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산악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문별로 선정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캔들레이, PGA 투어 '올해의 선수' 페덱스컵 우승 등 올 시즌 4승·세계랭킹 4위



캔들레이

패트릭 캔들레이(29·미국)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2020~2021시즌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PGA 투어는 14일 "올해의 선수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 캔들레이가 은람(스페인), 브라이슨 디샬보, 해리스 잉글리시,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아 2020~2021시즌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올해의 선수)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캔들레이는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8월 BMW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이달 시즌 최종전으로 열린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라 2020~2021시즌 페덱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올해 페덱스컵 우승으로 보너스 1500만 달러(약 175억 원)를 받았다. PGA 투어에서 한 시즌 4승 이상 기록은 2016~2017시즌 저스틴 토머스(미국)의 5승 이후 4년 만이다.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1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캔들레이는 2012년 프로로 전향해 2013~2014시즌부터 본격적인 PGA 투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허리 부상 때문에 2015년과 2016년 활동을 중단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부상에서 복귀 후 2017년 11월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며 2019년 6월 PGA 투어 두 번째 우승을 경험했다. 이후 우승이 없었으나 올 시즌에만 4승을 챙기며 세계 정상급 골퍼로 거듭나면서 올해의 선수의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캔들레이는 현재 남자 골프 세계랭킹 4위에 올라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SK·DB 나란히 2연승...4강 진출

각각 LG·가스공사 가뿐하게 제압 A조 1위 SK, KT-오리온 승자와 4강 C조 1위 DB, 현대모비스와 준결승



서울 SK와 원주 DB가 나란히 4강에 진출했다.

SK는 15일 상주체육관에서 열린 '2021 MG새마을금고 KBL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창원 LG를 83-71로 꺾었다. 2연승을 거둔 SK는 조 1위로 4강에 올라 B조 1위와 결승행을 다툰다. B조 1위는 16일 수원 KT-고양 오리온전에서 결정된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 벌어진 경기에선 원주 DB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109-92로 따돌리고 2연승으로 C조 1위를 차지했다. D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삼성이 참가하지 못하면서 조별리그를 치르지 않고도 D조 1위가 된 울산 현대모비스와 4강전에서 격돌한다. 4강전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 ●3·4쿼터 집중력 발휘한 SK

정규시즌에 활용할 대부분의 전력을 가동한 두 팀의 경기는 치열했다. 2쿼터까지 박빙승부가 이어졌고, LG가 41-37로 앞선 채 하프타임을 맞았다. 하

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돌아온 SK가 뒷심을 발휘했다. 3쿼터에 안영준(18점)과 자필 위니(14점·17리바운드)가 8점씩을 책임진 SK는 26점을 몰아치며 63-58로 역전했다. 4쿼터 들어서는 김선형(17점·5어시스트), 최준용(10점·5리바운드) 등의 특징이 고르게 터져 LG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 이관희(16점), 이재도(13점), 서민수(13점), 아셈 마레이(16점) 등의 분전이 돋보인 LG는 아쉽게도 1승1패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 ●파상공세로 1차전 부진 털어낸 DB

13일 고전 끝에 상무를 86-84로 제압한 DB는 가스공사를 상대로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선보였다. 내·외곽의 밸런스가 좋았다. 어시스트가 27개나 나왔을 정도의 원활한 패스워크로 3점슛 18개를 터트리며 많은 점수를 뽑았다. 허웅은 26분여만 뛰고도 3점슛 4개를 포함해 23점을 올렸다. 외국인선수 레나드 프리먼은 28점·14리바운드로 상무전보다 나은 활약을 보여줬다. 가스공사에선 외국인선수 앤드류 니콜슨이 34점·11리바운드, 두경민이 17점·7어시스트로 팀을 이끌었지만 DB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쿼터 막판 이대현(12점·7리바운드)이 5번째 개인파울로 일찍 벤치로 물러난 것도 아쉬웠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SK 안영준이 15일 상주체육관에서 벌어진 LG와 KBL컵 A조 최종전 도중 필드골을 시도하고 있다. 18점을 뽑은 그의 활약 속에 SK가 83-71로 이겼다. 사진제공 | KBL

## 스포츠단체 수장 최초 개인 유튜브 '가오형 라이프' 인기

로드FC 정문홍 회장 일상 공유 채널 이승윤·김수철 등 절친 게스트 참여



로드FC 정문홍 회장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 격투기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사고 있다.

정 회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가오형 라이프'를 운영 중이다. 자신의 일상은 물론 로드FC 선수들과 만나 그들의 인생과 경기, 팬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주는 채널이다. 그동안 '자연인' 이승윤을 비롯해 김수철, 황인수 등 여러 명의 게스트가 출연해왔다.

팬들은 정 회장 특유의 무심한 듯 특독 단지는 질문에 매력에 느끼고 있다. 평소 궁극한 것이 많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질문하지 못하는 것도 이 유튜브 채널에선 서슴없이 물어본다. 팬들을 위해 선수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에도 망설임이 없다. 이런 점들이 격투기 팬들의 감응을 해소해주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출연한 미들급 챔피언 황인수의 인터뷰 영상에서 최원준과 리매치, '절친' 김태인과 대결에 대해 물었다. 모두 팬이 그동안 궁금해 했지만 확실한



로드FC 정문홍 회장(왼쪽)의 개인 유튜브 채널 '가오형 라이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들급 챔피언 황인수(가운데)와 로드FC 부대표 박상민이 출연한 모습. 사진제공 | 로드FC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이었다. 정 회장의 질문에 황인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스포츠단체 수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국내스포츠를 통틀어서도 정 회장과 김태환 로드FC 대표밖에 없다.

정 회장은 팬들이 바라는 사항을 미리 파악한 뒤 직접 나서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팬들과 소통하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도다. 그는

"'가오형 라이프'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선수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알려주고 있다. 대회사의 공식 채널에서 나갈 수 없는 것도 개인 채널에선 가능하다"며 "개인적인 일상도 공유하면서 팬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밋글로 의견을 남겨주면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소화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성 기자 award@donga.com

## "제102회 전국체전 10월 8일 정상 개최해야"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성명서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가 10월 8일 구미 등 경북 일원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를 정상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전국체육대회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며

"국민체육진흥사업을 통한 체육보급과 엘리트체육 발전을 통한 스포츠 강국으로의 기반을 다지게 해준 체육 축제이며, 학생들의 진학과 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체육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가 되지 않아 연기된 전국체육

대회가 금년에도 정상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체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체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올해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